

일본어 모어화자에 대한 조사 ‘에게’와 ‘에’의 교수 방안 연구

김 형정*

Kim, Hyeong-Jeong. A Study on Teaching Method of Korean Particles ‘ege’ and ‘e’ for Japanese Native Speake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the method of effectively teaching the use of Korean Particles ‘ege’ and ‘e’ to learners who speak Japanese as a native language. Because particles ‘ege’ and ‘e’ in Korean correspond to all ‘に’ in Japanese, learners sometimes have error in choosing ‘ege’ or ‘e’. In Korean textbooks used at universities in Japan, it is explained that ‘ege’ is affixed to most of animate noun phrases such as human or animals, and ‘e’ is affixed to inanimate noun phrases such as objects and places. It follows the explanation of Korean grammar research. However, in example sentences shown in corpus, there are many exceptional sentences. (However, with the example sentences that has shown in the corpus, there are many exceptions.) A fundamental cause of such problem is a wrong approach of the existing research on ‘animacy’. Accordingly, in this study, in terms of ‘animacy hierarchy’, the usage of Korean particles ‘ege’ and ‘e’ is newly summarized. Also, the usage of ‘ege’ and ‘e’ indicated in Korean textbooks published in Japan is examined and its problems are indicated. The biggest problem is that ‘ege’ and ‘e’ is limited only to an elementary grammar items. Related people should be concerned about the way to provide the proper explanation and practice for an elementary, intermediate or advanced level, not stopping the usage of particles after presenting them notwithstanding the same grammar item.

Keywords: Korean Particles, ege, e, Japanese Native Speakers, Animacy

1. 들어가며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어를 모어로 하는 학습자들에게 한국어 조사 ‘에게’와 ‘에’의 용법을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한국어에서는 ‘철수가 영미에게 선물을 보냈다.’, ‘철수가 코아원에 선물을 보냈다.’와 같은 문장에서 알 수 있듯이 선행명사구의 속성에 따라 조사 ‘에게’가 오기도 하고 ‘에’가 이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일

* 동경대학교 특임준교수

본어에는 이러한 구분이 없이 모두 조사 ‘に’가 결합되기 때문에 일본어가 모어인 학습자들은 조사 ‘에게’와 ‘에’의 선택에 종종 오류를 일으킨다.

일본의 대학에서 사용되는 한국어 학습서에서 조사 ‘에게’와 ‘에’는 대부분 초급 단계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두 조사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사람이나 동물 명사에는 ‘에게’가 붙고 사물이나 장소 명사에는 ‘에’가 붙는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와 같은 설명은 한국어 문법 연구에서의 기술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즉, 선행명사구가 [+유정]의 속성을 가지면 ‘에게’가, [-유정]의 속성을 가지면 ‘에’가 결합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으로 설명되지 않는 예들이 있다. 아래의 (1)을 보자.

- (1) a. 아이가 인형에게 옷을 입히며 놀고 있다.
 b. ... 복지부는 WHO에게 확인을 요청한 바 있다.
 c. 권세와 재산이 있고 팔방미인이라도 술 마시는 사람은 미련한 자에 속한다.

(1a)에서 ‘인형’은 무정물이지만 사람과 비슷한 생김새를 가지고 있어서 간혹 유정물명사구처럼 취급되기도 한다. 따라서 조사 ‘에게’가 결합된 것이다. (1b)의 ‘WHO’는 조직명인데 유정물명사구가 아님에도 조사 ‘에게’가 결합되어 있다. 이 문장의 WHO는 조직 그 자체를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일하는 스태프를 가리킨다. 이처럼 다수의 사람들을 구성원으로 해서 이루어진 집단을 가리키는 명사의 경우 그 집단에 속한 구성원의 행위 혹은 생각을 대변하여 유정물명사구처럼 쓰이기도 한다. 한편, 선행명사구로 유정물명사구가 와도 조사 ‘에’가 결합되는 예도 있다. (1c)가 그것이다. ‘속하다’ 등의 포함 관계를 나타내는 술어의 경우에는 선행명사구의 유정성과는 상관없이 언제나 조사 ‘에’가 이어진다.

위의 예들을 통해 일본의 대학에서 사용되는 학습서에 나타난 기술만으로는 실제의 조사 ‘에게’와 ‘에’의 쓰임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유정성(animacy)’에 대한 기존 연구의 접근법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명사구의 유정성이라는 의미 속성에 초점을 맞추어서 조사 ‘에게’와 ‘에’의 용법을 정리한 후, 일본어 모어화자 학습자들이 조사 ‘에게’와 ‘에’를 보다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방안의 방향성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일본어 모어화자에 대한 조사 ‘에게·에’의 교수 현황

이 절에서는 일본에서 사용되는 사전이나 교재, 일본의 조선어학 연구에서 나타나는 조사 ‘에게’와 ‘에’의 기술에 관해서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지적한다.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 앞서 두 가지 전제를 밝혀둔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살펴보는 한국어 교재와 사전 등은 일본에서 일본어로 출간된 것이 중심이 된다. 둘째, 최근 일본에서는 중고등학교에서도 제2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으로 한정한다.¹⁾

2.1. 한국어·조선어 문법사전 및 대역사전에서의 기술

우선 한국어·조선어 문법사전에 실려 있는 내용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참조한 사전은 『韓國語文法辭典』(2004), 『韓國語文法語尾·助詞辭典』(2010), 『標準韓國語文法辭典』(2012)의 세 권이며, 모두 한국에서 출간된 학습자 사전을 번역한 것이다.

『韓國語文法辭典』(2004)에서는 ‘에게’의 참고 항목에서 앞에 오는 명사가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일 경우 ‘에게’ 대신에 ‘에’를 쓴다는 설명을 하고 있다. 그 예로는 ‘어머니에게 연락했어요./ 고향에 연락해 보아요.’와 ‘이것을 이 교수님에게 전해 주세요./ 이것을 이 교수님 댁에 전해 주세요.’의 두 가지를 들었다.

『標準韓國語文法辭典』(2012)에서는 ‘에게’를 ‘(사람이나 동물을 나타내는 명사에 붙어서) 행위의 영향을 받는 대상인 것을 나타내는 조사’

¹⁾ 연구논문 등을 일반적인 방법대로 지사명과 연도로 표기하였으나, 사전과 교재는 지사명이나 편저명으로 하지 않고 서적명과 연도를 제시하였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 『韓國語文法語尾・助詞辭典』(2010)에는 조사 ‘에’와 ‘에게’의 결합상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은 따로 없다.

두 사전 모두 참고나 보충 항목에서 조사 ‘에’와 ‘에서’, ‘에’와 ‘로’, ‘에게’와 ‘한테, 더러, 보고, 께’의 쓰임의 차이를 비교하여 보여 주고 있는데 조사 ‘에’와 ‘에게’의 용법의 차이를 비교하는 내용은 없다. 한국에서 출간된 학습자 사전의 번역으로서 특정한 모어화자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기 때문이겠지만 이왕 일본어로 번역을 해서 출간을 한다면 일본어 모어화자가 오류를 일으키기 쉬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보충하여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학습자 사전임을 표방하면서도 용법의 분류 및 제시는 『표준국어대사전』(1999), 『연세한국어 사전』(1998), 『고려대 한국어대사전』(2009), 『조선말대사전』(1992)과 같은 단일어사전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韓國語文法語尾・助詞辭典』(2010)에서 특이할 만한 것은 ‘에게’의 기술 중 비교의 의미 항목에 ‘비하다’를 술어로 하는 ‘너에게 비하면 형편없어.’라는 예문을 실은 것이다. 기존의 사전이나 문법서들에서 ‘비하다’는 ‘관하다, 대하다, 따르다, 반하다, 의하다’와 같은 부류로 분류되어 조사 ‘에’와 결합하여 몇몇 제한된 활용형으로만 쓰이는 일종의 관용구적 쓰임으로 취급되던 것이다.² 또한 『韓國語文法語尾・助詞辭典』(2010)에서는 ‘관해시, 대해시, 따라, 반해’ 등은 모두 조사 ‘에’와 결합된 형태가 표제항으로 올라간 반면 ‘대한’만 ‘에게 대한’이라는 형태로 실려 있다. 같은 용언인데 ‘대해시’는 조사 ‘에’가 결합되고, ‘대한’은 ‘에게’가 결합된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다.

두번째로 한일·일한 대역사전의 기술 내용을 살펴보았다. 대역사전의 기술도 한국이나 북한에서 출간된 단일어사전이나 문법서의 내용과 크게 다른 점은 없다.

『現代朝鮮語辭典改訂』(1967;1980)에서는 ‘에’는 사물의 낙착점(落着

² 『고려대 한국어대사전』(2009)에서도 비교 대상을 나타내는 의미항목에 ‘너에게 비하면 너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예문이 실려 있다.

点)이나 관계점(關係点)을 표시하는 격조사, ‘에게’는 사물이나 동물을 나타내는 체언에 붙어서 낙착점(落着点)이나 관계점(關係点)을 표시하는 격조사로 기술하고 있다.

『朝鮮語大辞典(大阪外国語大学朝鮮語研究室編)』(1986)에서는 ‘에’는 명사나 명사상당어구에 붙어서 여위격(与位格)을 나타내는 격조사, ‘에게’는 사람이나 동물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라고 하였다. ‘대학에 편지를 쓰다, 꽃에 물을 주다’에 나타나는 ‘NP에’는 비인칭의 간접목적어로, ‘그들에게 편지를 쓰다, 아들에게 돈을 주다, 사장에게 그렇게 말하다’ 등에 나타나는 ‘NP에게’는 행동이 미치는 상대방으로 기술하고 있다.

『コスモス朝和辞典(第2版)』(1988;1991)은 ‘에’와 ‘에게’를 대응시켜서 ‘장소, 방향, 동작이 미치는 대상, 동작·상태의 대상, 동작의 주제, 기준의 단위’의 6가지를 공통적으로 가지는 의미로 제시하고 있다. 이 중 ‘장소’와 ‘방향’을 나타내는 ‘에게’는 ‘~の所に’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에까지, 에도, 에게라도, 에게로’ 등 ‘에’나 ‘에게’에 다른 조사가 붙어서 형성하는 결합형들과 ‘-에 관하여, -에도 불구하고’ 등의 관련 표현을 다수 실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朝鮮語大辞典(大阪外国語大学朝鮮語研究室編)』(1986)과 『コスモス朝和辞典(第2版)』(1988;1991)은 1960년에 발간된 『조선어문법1(어음론, 형태론)』 등 북한 문법서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인다. 여위격이라는 개념을 쓴 점이나 ‘에’와 ‘에게’의 의미 기술의 내용도 그러하고 예문 또한 북한 문법서에 실린 예문을 약간 수정하거나 그대로 차용한 것이 많다.³⁾

『朝鮮語辞典』(1993)에서는 ‘~に’가 아니라 ‘~にとって’로 번역되는 ‘에게’를 별도의 의미항목으로 세워서 기술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예로는 ‘소설을 읽는 독자들에게 소설의 세계는 커다란 세계이다.’를 들었다. 『小学館日韓辞典』(2008)은 일한사전으로서 일본어의 ‘に’가

³⁾ 북한의 대부분의 문법서에서는 ‘에, 에게, 께’는 여격으로, ‘에서, 에게서’는 위격으로 분류하고 있다. 다만 『조선어문법1(어음론, 형태론)』(1960)은 예외적으로 ‘에, 에게, 에서, 에게서’를 모두 합쳐서 ‘여·위격’으로 범주화하였다.

아니라 ‘で’에 대응하는 ‘에’의 용법을 한번에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시간’을 나타내는 ‘오늘은 2시에(2時で) 학교가 끝난다.’, ‘연령’을 나타내는 ‘그녀는 스물일곱 살에(27歳で) 결혼했다.’, ‘가격’을 나타내는 ‘이 티켓은 2천 엔에(2千円で) 샀다.’가 그것이다. 『間違いやすい韓国語表現100初級編』(2007:25)에서도 주의해야 할 조사 용법의 하나로 시 ‘비용, 소요시간, 연령’을 나타내는 조사 ‘で’는 한국어에서는 조사 ‘에’로 써야 한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⁴

2.2. 한국어·조선어 교재에서의 기술

다음으로 일본의 대학에서 사용되는 한국어·조선어 교재에서 조사 ‘에게’와 ‘에’를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지 살펴해보도록 한다.

『NHK新版 ハングル入門』(2006)은 총 36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에’는 10과, ‘에게, 한테’는 25과, ‘께’는 26과에 제시되어 있다. 조사 ‘에’의 용법은 위치나 장소를 나타내는 의미만 실려 있다. 여격조사인 ‘한테, 에게, 께’는 위치를 나타내는 ‘에’와 달리 생물에 붙는다고 하였으며, ‘한테’는 구어형, ‘에게’는 문어형, ‘께’는 존경형으로 기술하고 있다. 문법항목을 정리하여 설명한 ‘기본문법개설’ 부분에서 ‘에게, 한테, 께’는 여격조사로 ‘에’는 부조사(副助詞)로 분류하고 있다.

『朝鮮語の入門改訂版』(2007)은 총 60과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 ‘에’는 14과에서 일본어의 ‘に’에 해당하는 조사라는 간략한 설명과 함께 처음 제시된다. 조사 ‘에게’는 17과에 나온다. ‘に’의 의미를 가지며 사람에게 사용되는 형태라고 하였다. 앞서 나온 조사 ‘에’에 대해서는 사람이외의 것에 사용된다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31과에서는 문어와 구어의 차이에 대해 설명하면서 조사 ‘한테’와 ‘께’를 언급한다. 구어에서는 조사 ‘에게’ 대신에 ‘한테’가 사용되며, 뒷사람을 나타내는 체언 뒤에서는 ‘한테’ 대신에 ‘께’가 사용되는 경우도 많다고 하였다. 40과의 후지사 항목에 ‘-에 대한, -에 대하여(대해서), -에 있어서의, -에 있어서’

⁴ 두 서적에 같은 지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의 형태와 의미가 제시되어 있다.

『新・至福の朝鮮語』(2007)은 총 24과로 구성된 교재이며, ‘에’는 11과, ‘에게, 한테, 께’는 12과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이 책에서는 체언에 조사가 붙는 것도 활용으로 보아 조사를 ‘체언어미’로 범주화한다. ‘에’는 사물에 붙어서 존재의 장소나 동작의 귀착점을 나타내는 여위격의 어미라고 하였고, ‘에게’와 ‘한테’는 사람을 나타내는 체언에 붙는 여위격 어미라고 하였다. 또한 ‘한테’는 구어, ‘에게’는 문어에서 사용되는 형태이며, ‘께’는 이들의 존경형이라고 기술한다.

『ことばの架け橋改訂版』(2011)은 총 21과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 ‘에’는 5과에서 위치 관계를 나타내는 조사로 나와 있다. 그리고 12과에서 ‘에게, 한테, 께’가 제시되는데 사물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말에는 조사 ‘에’가 붙고 사람이나 동물을 나타내는 말에는 ‘에게’나 ‘한테’가 붙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께’는 ‘에게’의 존경형으로 제시되어 있다.

『実用韓国語改訂版』(2014)는 총 12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3과에 조사 ‘에,에게, 한테’의 설명이 실려 있다. 조사 ‘에’의 의미를 소재, 귀착점, 시간의 세 가지로 분류하고 이 중 소재와 귀착점에 대해서 조사 ‘에게’와 ‘한테’를 대응시켜서 설명한다. 소재의 경우는 인간일 때 ‘에게’나 ‘한테’가 붙는다고 하였으며, 귀착점의 경우는 인간이나 동물일 때 ‘에게’나 ‘한테’가 붙는다고 하였다. 참고 항목에서 ‘에게’와 ‘한테’를 비교하여 ‘한테’는 구어에서 사용되는 형식이라고 설명한다. ‘께’는 중급 교재인 『実用韓国語2改訂第2版』(2007;2014)의 6과에 ‘에게, 한테’의 존경형으로 제시되어 있다.

위의 교재들은 모두 저명한 일본의 조선어학 연구자들이 집필한 것이다. 이들 교재들에서 ‘에’와 ‘에게’에 대한 설명은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인 기술 내용은 그다지 다르지 않다. 일본에서 출간된 다른 한국어 교재들에서의 설명도 위의 교재들과 거의 대동소이하지만, 최근에는 조금 더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는 교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改訂版バランス韓国語初級』(2013)과 『バランス韓国語中級』(2010)

은 일본에서 치러지는 한국어 검정시험의 하나인 한글능력검정시험의 5급과 4급에 각각 준거하여 만들어진 교재이다. 따라서 문법항목도 한글능력검정시험의 목록에 근거하여 기술되어 있다. 초급 교재에는 네 가지 ‘에’의 용법이 실려 있는데, ‘에①-방향·목적지, 에②-장소, 에③-시간, 에④-단위’가 그것이다. ‘에게’와 ‘한테’에 대한 설명은 다른 교재들의 내용과 동일하다. 중급 교재에서는 한글능력검정시험 4급의 문법항목에 근거하여 일거의 의미를 가지는 접속조사 ‘에’의 용법을 싣고 있다. ‘새 프린터에 라디오에...’의 예가 그것이다. 『改訂版韓国語の世界へ入門編』(2012)는 ‘에게’와 ‘한테’에 대한 설명이 기존 교과서와 다르다. 사람이나 동물 등을 나타내는 체언에 붙어서 동작이 미치는 상대를 표현하는 조사라고 기술하고 있다. 『韓国語の世界へ初中級編』(2013)의 부록에는 조사를 총정리한 목록이 실려 있는데 ‘에게’의 의미·기능을 ‘受け手’(상대)라고 하였다. 또한 사람을 나타내는 명사에 ‘에게’나 ‘한테’가 붙어서 일본어의 ‘(人)のところに’의 의미를 나타내는 예도 보여주고 있다. ‘그 책은 우리 언니에게 있어요.(その本はうちのお姉さんのところにあります)’가 그것이다. 『アラン 改訂版』(2015)에는 ‘에’의 용법이 기존의 교재들보다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장소, 시간, 가격, 기준, 단위, 원인·이유’의 7가지 의미를 제시하고 각각에 해당하는 예문을 들었다.

2.3. 한국어·조선어 연구에서의 기술

마지막으로 문법이나 논문에서 ‘에게’와 ‘에’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주로 일한 대조연구의 관점에서 기술되었으며, 양적으로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하기는 어렵다. 일본어와 한국어의 문법항목들을 대조하여 체계적으로 기술한 연구서로는 油谷(2005)를 들 수 있다. 油谷(2005:125~128)에서는 ‘에’의 용법을 11개로 나누어서 설명한다. ‘①소재, ②동작·작용의 귀착점, ③시간, ④장소, ⑤한정된 시간·기간, ⑥도구·수단·재료, ⑦수동문의 동작주체나 원인, ⑧가격, ⑨기준이 되는 단위, ⑩열거, ⑪병렬’이 그것이다. 이 중 ‘①소재’와 ‘⑦

수동문의 동작 주체나 원인’에 대해서는 인간일 때는 ‘에게’나 ‘한테’를 쓴다고 하였다. 그리고 ‘②동작·작용의 귀착점’에 대해서는 인간이나 동물일 때는 ‘에게’나 ‘한테’를 쓴다고 하였다. 소재와 귀착점의 용법에 시는 ‘에게’가 ‘に’에 대응하지 않고 ‘のところに’에 대응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여기에 제시된 용법들은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⁵

- ① 소재 : 책상 위에 만년필이 있습니다. / 그 책이라면 나에게 있어.
- ② 동작·작용의 귀착점 : 같이 극장에 안 가지겠어요? /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다. / 개에게 밥을 주었다. / 나한테 와 봐.
- ③ 시간 : 3시에 도서관에서 만납시다.
- ④ 장소 : 두 나라 사이에 다툼이 심해졌다.
- ⑤ 한정된 시간·기간 : 15살에 대학교에 들어갔다.
- ⑥ 도구·수단·재료 : 물에 손을 씻었다.
- ⑦ 수동문의 동작주체나 원인 : 인파에 밀려 장외로 나왔다. / 백제는 신라에 멸망하였다. / 연수에게 한 대 맞았다.
- ⑧ 가격 : 그 카메라는 얼마에 사셨어요?
- ⑨ 기준이 되는 단위 : 하루에 스무 대 생산합니다.
- ⑩ 열거 : 백주에 와인에 위스키에 다 마셨다.
- ⑪ 병렬 : 40, 50대 사람들은 아무리 가정용 PC 시대가 도래해도 기능은 절반에, 가격은 두 배인 워드프로세서를 선호했다.

일본어 ‘に’격에 대한 한국어 대응 부분에서는 소재와 도달점 항목에서 ‘에게’와 ‘한테’를 ‘에’와 같이 제시하고 있으며, 수동문의 동작 주체에 대한 언급은 없다.⁶

ハン・ナムス(1979)는 술어와의 결합관계를 중심으로 ‘에게’의 용법을 상세하게 분석한 연구이다. 크게 ‘상대의 관계’와 ‘소유·내재의 관계’

⁵ ‘에게·한테’와 ‘에’가 대응 관계를 가지는 ‘소재, 동작·작용의 귀착점, 수동문의 동작 주체나 원인’의 용법은 油谷(2005)에 실린 모든 예문을 가지고 왔고, 그외에는 대표적인 예 한 개씩만 들었다. 밑줄은 필자가 그은 것이다.

⁶ 油谷(2005:137-140) 참조.

의 두 가지로 나누고, ‘상대의 관계’는 ‘주고 받는 상대, 언어활동의 상대, 태도의 상대, 작용의 상대’의 네 가지 하위분류를 가지는 것으로 기술하였다. 명사와 동사의 결합관계에 근거한 이러한 분류 방법은 출간 연도가 늦어지기는 했지만 일본어의 ‘に’격과 동사의 결합관계에 대해 기술한 奥田(1983)을 참고한 것이라고 한다. 生越(2002)는 일본어 조사 ‘に’와 한국어 조사 ‘에게’의 차이점에 대해 고찰한 논문이다. ‘남편이 아내에게 반지를 샀다.’라는 문장은 한국어에서는 비문이 되는 반면 그에 대응하는 일본어에서는 적격한 문장으로 성립한다고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3. 조사 ‘에게·에’의 용법 및 특징

한국어 조사 ‘에게’와 ‘에’의 쓰임에서 일본어 모어화자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언제 ‘에’ 대신에 ‘에게’를 선택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며, 이것은 선행명사구의 유정성과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이 절에서는 유정성이라는 특징에 초점을 맞추어 ‘에게’와 ‘에’의 용법을 분류하고 각 용법의 특징에 대해 기술해 보기로 한다.⁷

3.1. 선행명사구의 유정성과 관계있는 용법 및 유정성 위계

3.1.1. 선행명사구의 유정성과 관계있는 ‘에게·에’의 용법

우선 선행명사구의 유정성과 관련성을 가지는 ‘에게·에’의 용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즉, 명사구가 유정물인지 무정물인지 따라 조사 ‘에게’가 결합되기도 하고 ‘에’가 결합되기도 하는 것들로서, 아래의 7가지가 있다.

<표1> 선행명사구의 유정성과 관계있는 ‘에게·에’의 용법

용법	예
<1>행위의 상대·도달점 (1)전날 행위의 상대·	(2) a. <u>그 애에게</u> 꽃을 주었다.

⁷ 이 절의 내용은 김형정(2009), 김형정(2010), 김형정(2012a), 김형정(2012b), 金亨貞(2014)의 연구 결과를 참조하여 수정·보완한 것이다.

도달점(수여술어구문) ②발화 행위의 상대· 도달점(발화술어구문) ③이동 행위의 상대· 도달점(이동술어구문) ④태도 표명의 상대· 도달점(태도술어구문) ⑤작용을 받는 상대· 도달점(작용술어구문)	b. 아연 원자가 수소 이온에 전자를 주었다. (3) a. 이사무원이 영애에게 말했다. b. 미국에 ‘아니오’라고 말한다. (4) a. 그 무렵에 토마스가 내게 왔다. b. 그녀는 제주도에서 온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다. (5) a. 남동생에게 부모의 부양을 기대한다. b. 언론에 공정한 보도와 논평을 기대한다. (6) a. 제3의 물결은 ... 모든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b. 쏟아지는 빗방울은 경기력에 영향을 미친다.
<2>사물이나 속성의 소재지·소유자 (소재·소유 구문)	(7) a. 늙은 어머니에게 한 바리의 나귀가 있었다. b. 곁방에 주소가 있습니다. c. 사고의 책임은 진적으로 나에게 있었다. d. ... 선생 동티모르에 이러한 장점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
<3>무엇인가가 생기는 장소(생성술어구문)	(8) a.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더라. b. 회사에 일이 생겨서 나가 봐야 한다.
<4>판단의 기준 대상 (판단술어구문)	(9) a. 영화에게 청바지가 잘 어울렸다. b. 프랑스어 발음도 분위기에 딱 어울린다.
<5>사역 행위의 대상 (사역술어구문)	(10) a.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행사 준비를 시켰다. b. 학생주임이 학생부에 두발 단속을 하도록 시켰다.
<6>행위나 작용을 일으키는 작용자(피동술어구문, 유사피동술어구문)	(11) a. 미 보병이 인민군에게 사단기를 빼앗기는 바람에 ... b. 농도 태반을 물에 빼앗기고 ... c. 성실한 남편이 전과 7범의 사기꾼에게 속아 ... d. 선전문구에 속아서는 안 된다.
<7>심리·지각 작용의 주체(심리술어구문)	(12) a. 내용을 다루지 않는 논리학이 우리에게 낯설었다. b. 휴식은 ... 플레이오프를 기치면서 체력이 소모된 LG에게 더욱 골맛 깊다.

위의 예들에서 같은 술어의 논항이 되는 ‘NP에게’와 ‘NP에’는 선행명사구의 의미 속성에 따라 ‘에게’와 ‘에’의 선택이 달라지는 것일 뿐 의미구조상에서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4>의 어떠한 판단을 하는 기준 대상이 되는 ‘NP에게’와 ‘NP에’는 ‘맞다, 어울린다, 좋다, 나쁘다’가 술어로 나타나는 예가 많았다. <6>은 피동사를 술어로 하는 피동구문 혹은 의미적으로 피동의 의미를 가지는 유사피동구문에서 나타나는 용법이다. (11b)의 ‘물에’와 (11d)의 ‘선전문구에’는 무정물명사구이기 때문에 조사 ‘에’가 결합되어 있지만 의미구조상의 역할은 (11a), (11c)의 ‘인민군에게’나 ‘사기꾼에게’와 같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의 의미관계를 분리하여 ‘NP에’는 도구나 원

인으로 ‘NP에게’는 행위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김형정(2012b)에서는 이 둘을 ‘영향주(effecttor)’라는 의미관계로 통합하여 분석하였다. <7>의 경우 심리술어의 경우 감정이나 감각을 느끼고 표출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유성물이므로 대부분 ‘에게’와 결합된 형태로 나타난다. (12b)에서 실제로 꿀맛과 같다고 느끼는 것은 LG라는 조직 자체가 아니라 그 팀에 소속된 팀원들이며, 이러한 구성원들의 감각이 LG라는 조직체에 투영되어 표현되고 있다.

3.1.2. 조사 ‘에게·에’의 선택과 유정성 위계

3.1.1.에서 제시한 여러 구문들에서 조사 ‘에게’가 결합될지 ‘에’가 결합될지는 선행명사구의 유정성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유정]이면 ‘에게’, [-유정]이면 ‘에’와 같은 이분법적인 선택은 아니다. 유정성이라는 것은 분명한 경계를 가지는 이분적인 자질 범주가 아니라 ‘원형성(prototype)’과 ‘정도성(degree)’을 가지는 위계적 범주이다.

1970년대 이후 유형론적 문법(Typological approach)을 중심으로 명사구에는 어떠한 계층성이 존재하며, 이러한 위계가 주어 선택, 격 표시, 이순, 주제화, 수의 구별 등 다양한 문법 현상과 연관성을 가진다는 사실이 밝혀져왔다.⁸ 이러한 위계는 일반적으로 ‘유정성의 위계’라고 불리며,⁹ 세계의 여러 언어들에서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연구자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1인칭(화자)·2인칭(수신자) > 3인칭 대명사 > 사람 고유명사 > 사람 보통명사 > 사람이 아닌 유정 명사 > 무정 명사’의 위계가 가장 보편적인 형태로 인정된다. 김형정(2012a), 金亨貞(2014)에서는 한국어의 명사구에도 유정성과 관련된 어떠한 위계가 존재한다는 가설을 세우고, 만몽치에서 추출한 약 3만여개의 용례를 대상으로 의미적·형태적 분석 및 빈도 조사와 통계적 검증을 거쳐서 한국어

⁸ 가장 간단한 예를 들자면 사람명사가 사물명사보다 주어로 선택되는 확률이 높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즉, 명사구의 종류에 따라 언어 현상에서 더 유효적으로 기능하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⁹ ‘유정성 위계’ 대신에 ‘행위주로서의 가능성 위계’, ‘감정이입(empathy)의 위계’라는 개념을 사용한 연구도 있다.

명사구의 유정성 위계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국어 명사구의 하위분류 및 유정성 위계를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표2> 한국어 명사구의 하위분류

명사구		하위 분류
유정물 명사구	사람 유정물 명사구	인칭대명사 <저, 우리, 너, 그분, 자기, ... > 사람고유명 ¹⁰ <난희, 김대업 씨, 문 부장, ... > 사람보통명사(친족) <고모, 손자, ... > 사람보통명사(일반) <학생, 여자, 손님, 아기, ... > 사람보통명사(집단) <대중, 민족, 인류, ... >
	사람 이외의 유정물명사구	유사사람명사 <귀신, 괴물, ... > 동물명사 <개, 모기, ... >
유정물 무정물의 성계적 명사구		식물명사 <꽃, 나무, ... > 집단명사 <갱단, 성부, 시민단체, 한국, ... > 특별한 사물명사 <로봇, 인형, 자동차, 컴퓨터, ... >
무정물명사구		자연현상 명사 <바람, 불길, ... > 신체명사 <손, 발, ... > 사물명사 <반지, 돌, 칼, ... > 사태명사(행위, 사건, 상태) <선전, 축구, ... > 추상명사(개념, 감각, 위치) <생각, 공포, ... >

<표3> 한국어 명사구의 유정성 위계

유정성 위계	관련 특성
1) 유정물명사구 > 유정물과 무정물의 성계적 명사구 > 부정물명사구	(1) (협의의) 유정성, 인간성, 행위주성
2) 사람 유정물명사구 > 사람 이외의 유정물	(2) 인간성

¹⁰ 인칭대명사나 사람보통명사는 ‘명사’라는 용어를 사용한 데 반해 사람고유명은 ‘고유명사(proper nouns)’가 아니라 ‘고유명(proper names)’이라고 하였다. 이는 고유명의 경우 ‘김대업 씨, 배 조교, 문 부장, 김대중 대통령’ 등 두 어절 이상으로 이루어진 구성이 많기 때문이다. 유정성 명사구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도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고유명사대신에 고유명을 쓰기도 하였다. 사람고유명뿐만 아니라 이른바 고유명사라고 지칭되어 온 것들을 과연 한 단어에 기반한 명사라는 범주로 묶을 수 있는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자들이 분재설을 지성한 바 있다. 예를 들어,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와 같은 작품명이나 ‘서대문 자연사박물관’과 같은 장소명은 분명히 어떤 것의 고유한 이름이지만 이들을 ‘고유명사’라고 부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명사구	
3) 인칭대명사 > 사람보통명사 4) 사람고유명 > 사람보통명사	(3) 개별성
5) 사람보통명사(친족) > 사람보통명사(일반) > 사람보통명사(집단)	(4) 개별성·지시성
6) 1인칭·2인칭 대명사 > 3인칭 대명사	(5) 담화 참여성
7) 단수명사구 > 복수 명사구	(6) 개별성·단수성
8) 한정적 용법의 명사구 > 비한정적 용법의 명사구	(7) 개별성·한정성

<표3>을 보면 유정성과 관련되는 명사구의 위계에는 유정물인가, 무정물인가 하는 좁은 의미에서의 유정성뿐만 아니라 인간성(humanness), 행위주성(agency), 개별성(individuation), 지시성(referentiality) 등 여러 가지 특성이 관련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유정성 위계는 일직선상으로 단순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특성들과 관련하여 다층적인 양상을 보이게 된다. 유정성과 관련된 특성 중 개별성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개별성은 한 개체를 다른 개체와 구별되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존재로서 인식하는 정도를 말한다. 지시성은 현실 세계에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특정한 개체를 지시하는가, 부류 일반, 즉, 전체로서의 유(類)를 지시하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되는 것이다.

한국어 명사구의 유정성 위계는 조사 ‘에게’와 ‘에’의 선택에 체계적으로 관여한다. 유정성 위계는 단선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지만, <표2>의 ‘한국어 명사구의 하위분류’를 대체로 유정성이 높은 명사구로부터 낮은 명사구의 순으로 정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유정성 위계에서 높은 곳에 있는 명사류는 술어나 화자의 판단과 같은 외부 변수와 상관없이 거의 대부분 조사 ‘에게’와 결합된다. 특히 인칭대명사의 경우는 조사 ‘에게’와의 결합 비율이 거의 100%로서 매우 특수한 조건이 아니라면 ‘에게’하고만 결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정물명사구라도 위계가 낮아질수록 ‘에게’와 ‘에’의 선택에 혼동을 보이는 예들이 생기나며, 무정물명사구에 이르면 조사 ‘에’와의 결합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진다. 여기에서는 유정성 위계와 관련하여 조사 ‘에게’

와 ‘에’의 결합에 흔들림이 보이는 예들을 몇 가지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유정불명사구에 조사 ‘에’가 결합된 경우를 보자.

- (13) a. ... 도깨비에 혼린 감도 들어 머쓱해지면서 마누라에게 미안한 감이 들었다.
 b. 개미나 벌과 같은 곤충에 물렸을 때 ...
 c. 지도적인 기능은 상실되고 대중에 영합하려는 경쟁을 벌인다.
 d. ... 가족들은 이웃들에 둘러싸여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13a)의 ‘도깨비’는 유사사람명사이며, (13b)의 ‘곤충’은 동물명사이다. 사람명사보다 위계가 낮은 유사사람명사나 동물명사는 사람명사에 비해 조사 ‘에’가 붙는 비율이 더 높다. 사람 유정불명사구와 사람 이외의 유정불명사구에서 조사 ‘에게’와 ‘에’의 결합 비율은 각각 <95.0%:5.0%>와 <79.6%:20.4%>로 나타났다. 동물명사의 경우 인간 사회와 밀착해 있는 ‘개, 고양이’ 같은 명사보다는 생물학적으로 인간과 거리가 먼 곤충이나 미생물 같은 부류에서 ‘에’가 결합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달리 (13c), (13d)는 모두 ‘에’의 선행명사구로 사람 유정불명사구가 온 경우이다. (13c)의 ‘대중’은 사람보통명사 중 집단을 나타내는 부류이다. ‘대중, 청중, 민족, 혈족, 인류, 전국민’ 등의 명사는 명사 자체의 의미 특성상 한 사람의 개별 인간이 아닌 전체로서의 유(類)를 기본 의미로 가진다. (13d)의 ‘이웃들’은 사람보통명사의 복수형이다. 같은 사람명사라고 해도 구체적이고 개별화된 특정 개인을 지시하는 용법이 불특정의 다수를 지시하는 용법에 비해 유정성의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13c)와 (13d)의 ‘대중’과 ‘이웃들’은 모두 불특정의 다수를 가리키는 경우로서 유정성의 위계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13c), (13d)에서도 조사 ‘에게’와 ‘에’에 흔들림이 나타나는 것이다.¹¹

¹¹ 사람보통명사에서 조사 ‘에게’와 ‘에’의 결합 비율은 ‘사람보통명사(친족)<100.0%:0.0%>, 사람보통명사(일반)<95.2%:4.8%>, 사람보통명사(집단)<88.7%:19.3%>로 나타났다.(金亨

다음으로 유정물과 부정물의 경계적 명사구의 예들을 살펴보도록 한다. 유정물과 부정물의 경계적 명사구로는 ‘꽃, 나무’와 같은 식물명사, ‘갱단, 시민단체, 한국’과 같은 집단명사, ‘인형, 로봇, 컴퓨터, 자동차’와 같은 일부 특별한 사물명사의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이들 명사는 경계적인 속성을 띠고 있으므로 조사 ‘에게’와 ‘에’의 결합에 있어서도 유동적인 양상을 보인다.

- (14) a. 내가 그 꽃에게 물을 주었고, 애기를 늘어웠고, 벌레를 잡아줬기 때문이야.
 b. 상희, 꽃에 물 주고 있다.
 c. ... 공기인형을 마치 사람처럼 대하녀 인형에게 집착하던 영화.
 d. ... 인형에 집착하는 아이.
 e. 누가 그런 권력을 시민단체에게 주었던 말이오?
 f. 첫 번째 책의 판권은 모 시민단체에 썼었다.

(14a), (14b)는 ‘물(을) 주다’라는 술어구가 각각 ‘꽃에게’와 ‘꽃에’를 논항으로 취한 예이다. (14a)는 『어린왕자』에 나온 구절이며, 여기에서의 ‘꽃’은 화자의 인식 체계 속에서 외부 세계에 타자로 존재하는 개체가 아니라 애정을 가지고 친밀하게 대하는 유정적인 ‘상대’로서 해석이 된다. 반면 (14b)의 ‘꽃에’는 물이 도달하는 단순한 ‘도달점’의 의미로서 장소명사에 가깝다. (14c), (14d)는 모두 ‘집착하다’를 술어로 하는 문장인데, (14c)에서는 ‘인형에게’, (14d)에서는 ‘인형에’와 함께 나타나 있다. 인형은 사람과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형에 대한 화자의 거리감에 따라 유정물처럼 인식되기도 하고 부정물이라는 원래의 속성에 따라 조사 ‘에’와 결합하기도 한다. (14e), (14f)의 ‘시민단체’ 또한 같은 술어입에도 불구하고 조사 ‘에게’와 ‘에’ 둘 다 결합 가능하다. 다수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조직체를 가리키는 집단명사는 구성원인 개개

인에 초점을 둘 것인가, 조직체 자체에 초점을 둘 것인가 하는 화자의 판단이나 문체적 조건 등의 변수에 의해 두 조사 중 하나가 선택된다. 한편 경계적 명사구라고 해도 항상 조사 ‘에’하고만 결합하는 경우도 있다. 아래의 (15)를 보도록 한다.

(15) a. 선생님이 나무에 기어오르라고 시켰으나 ...

b. 인형에 마약을 집어넣어서 불법으로 밀수하려고 했다.

c. 이들의 대부분은 시민단체에 소속되어 있다.

(15a)의 ‘나무’는 독수리가 기어오르는 연습을 하는 단순한 장소의 의미이기 때문에 조사 ‘에게’와는 같이 나타날 수 없다. 식물명사는 유정 불명사구로 여겨지지는 일도 있지만 움직이는 능력이 없어 다른 무생물 개체처럼 어떤 고정된 공간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는 장소명사와 유사한 속성을 가진다. (15b), (15c)의 ‘인형’과 ‘시민단체’ 또한 조사 ‘에’하고만 결합되는 예이다. ‘집어넣다’나 ‘소속되다’라는 술어 변수에 의해 조사 ‘에게’와의 결합이 제약을 받는 것이다.

한편, 문체적 조건 등에 의해 유정불명사구임에도 불구하고 조사 ‘에’가 결합되는 경우가 있다. 아래의 (16)이 그것이다.

(16) a. 대법, 강기훈 씨에 3년형 ... 재야 항의 시위

b. 새 일본 총리에 당부한다.

c. TV시사평론가 류개년(57)은 비록 돌후보에 3% 차이로 졌지만...

d. 현대 전준호가 ... LG 유지현에 크게 앞서고 있다.

(16a), (16b)의 ‘강기훈 씨, 새 일본 총리’는 둘 다 사람 유정불명사구이며, 원칙적으로 조사 ‘에게’가 결합되어야 하겠지만 실제로는 ‘에’가 결합되어 있다. 이들은 모두 신문이나 잡지의 제목에서 나타나며, 조사 ‘에게’ 대신에 ‘에’를 사용함으로써 독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짧고 압축적인 메시지로 독자들의 눈길을 끌어

야 하는 헤드라인의 특성에서 비롯된 언어적 장치가 신문이나 잡지의 문체로 정착된 것으로 생각된다. (16c), (16d)의 ‘돌후보, 유지현’ 또한 사람 고유명임에도 불구하고 조사 ‘에’가 결합되어 있다. 이러한 쓰임 역시 신문이나 잡지의 기사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주로 승패와 관련된 사태를 서술하는 문장에서 많이 나타난다는 특징을 보인다.

3.2. 선행명사구의 유정성과 관계없는 용법

‘에’의 용례 중에는 의미·통사적 조건에 의해 선행명사구로 유정물명사구가 화도 조사 ‘에’가 결합되는 예들이 있다. 이들 용법을 ‘술어와 논항의 결합관계에 의한 것, 조사 ‘에’의 의미 특성에 의한 것, 관용구적 쓰임’의 세 가지로 나누어 기술해 보고자 한다.¹²

3.2.1. 술어와 논항의 결합관계에 의한 것

첫 번째는 ‘임명하다, 오르다’ 등의 동사가 직위나 자격을 나타내는 명사와 결합하여 ‘어떤 직위를 맡게 되다’나 ‘어떤 자격을 가지게 되다’는 뜻이 되는 경우이다. 이때는 사람명사라고 해도 조사 ‘에’가 이어진다. 아래의 (17)을 보도록 한다.

- (17) a. 이에 오토 황제는 ... 황제 측근인 레오 8세를 교황에 임명하였다.
 b. 이날 선거에서는 ... 이교수가 과반수 이상을 득표해 의장에 당선됐다.
 c. 서울 남탔이 ... 한국바둑최강전 통합 챔피언에 올랐다.
 d. ... 디스코왕에 도전하는 부분이 후반에 급하게 나뉘져 ...

(17a)-(17c)에 나타난 ‘교황, 의장, 챔피언’은 {교황에게 칭배를 건넸다. / 의장에게 진의한다. / 챔피언에게 금메달을 수여하다}와 같이 조사 ‘에’와 결합하여 쓰일 수도 있다. 여기에서의 ‘교황, 의장, 챔피언’은 모

¹² 여기에 제시한 용법들은 사전이나 기존 연구에서도 부분 부분 언급이 된 것이지만, 실제 말문지의 용례 분석을 통해 하나의 기준에 따라 통합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두 한 명의 특정한 개인을 지시한다. 그러나 (17a)-(17c)의 ‘교황, 의장, 챔피언’은 특정한 개별 인물이 아니라 맡게 되거나 가지게 되는 직위나 자격을 가리키는 것이다. (17d)의 ‘디스코왕에 도전하다’는 ‘디스코왕에게 도전하다’로 바꾸어 쓸 수 있지만 그 의미가 달라진다. ‘디스코왕에게 도전하다’는 현재 디스코왕의 자격을 가진 어떤 사람에게 도전한다는 의미이며, ‘디스코왕에 도전하다’는 디스코왕이라는 타이틀에 도전한다는 의미가 된다. 이처럼 특정한 사람을 지시하는 의미와 해당 직위나 자격을 지시하는 의미의 두 가지 뜻을 가진 몇몇 사람명사의 경우 술어와의 결합관계에 따라 조사 ‘에게’와의 결합이 제한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술어의 의미 특성에 의해 결합되는 논항에서 선행명사구가 유정물이건 무정물이건 언제나 조사 ‘에’를 요구하는 경우이다. 우선 포함 관계를 나타내는 ‘속하다’ 류의 용언이 있다.

- (18) a. 그러나 화가는 ... 세상 사람이 흔히 말하는 이른바 기인에 든다.
 b. ... 정몽구 회장은 정 전 회장의 특수관계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
 c. ... 사오정 시리즈의 의미를 즉각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날아라 슈퍼보드>를 즐겨보던 세대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d. ... 개인 일반과세자의 70%정도가 과세특례자에 해당된다.
 e. 오히려 문명 예찬론자에 가깝죠.
 f. 친구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

(18a)-(18c)는 ‘들다, 포함되다, 속하다’를 술어로 취하여 이와 결합된 ‘기인, 특수관계인, 세대’는 문장의 주어가 속하게 되는 어떤 부류 일반을 가리키게 된다. (18d), (18e)에서 술어인 ‘해당하다’와 ‘가깝다’ 또한 넓은 의미에서 포함 관계를 나타내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으며, ‘과세특례자’나 ‘문명 예찬론자’의 범위에 들게 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18f)와 같은 ‘B에 A가 있다’라는 문형도 ‘B>A’라는 포함 관계를 가지므로 사람명사임에도 ‘에’가 결합되었다.

다음으로 수준이나 정도가 어떤 선을 넘지 못하고 미약한 단계에 머

물러 있다는 의미를 가지는 ‘불과하다’ 류의 용언이 있다. 아래의 (19)가 그것이다.

- (19) a. 하녀에 불과했던 신데렐라가 왕자를 만나 ...
 b. 남이 보면 나 역시 어린이에 지나지 않는 나이였다 .
 c. ... 그가 주변의 칭찬에 미불렀다면 단지 일류기술자에 그쳤을 것이다.

이와 같이 ‘불과하다, 지나지 않다, 그치다’가 술어가 되는 문장에서는 유정물명사구인 경우에도 조사 ‘에’가 결합된다. (18), (19)의 ‘기인, 특수관계인, 과세특례자, 하녀, 일류기술자’ 등은 구체적인 특정 개별 인물이 아니라 해당되는 전체 부류, 혹은 그 부류에 속하는 불특정의 어떤 개인을 지시하고 있다. 술어의 의미 특성에 의해 결합하는 명사구의 개별성이 희석되면서 조사 ‘에게’가 아닌 ‘에’가 결합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비교’ 혹은 ‘비유’의 의미를 가지는 몇몇 술어 또한 선행명사구가 유정물인 경우에도 조사 ‘에’가 선택되는 경우가 있다. ‘비금가다, 견주다, 비유되다, 못지 않다’가 그것이다.¹³

- (20) a. 60년대 안토니오에 비금가는 연출력 ...
 b. 내 어머니의 근면도 아버지에 못지 않으셨다.
 c. 코스모스는 이성적인 꽃, 특히 가녀린 여성에 비유되는 꽃임에 틀림 없지만 ...

(20a)의 ‘비금가다’는 ‘견주어 보아 우열을 가릴 수 없을 만큼 동등하다’는 의미이며, 사람고유명인 ‘안토니오’에 조사 ‘에’가 붙어 있다. (20b), (20c)도 마찬가지이다.

¹³ 비교나 비유의 술어에 대해서는 ‘에’ 대신에 ‘에게’를 써도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3.2.2. 조사 ‘에’의 의미 특성에 의한 것

<1> 열거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

아래의 (21)의 ‘에’는 대상을 나열하는 ‘열거’의 용법을 가지는데, 이 경우에도 항상 조사 ‘에’가 결합된다.

- (21) a. 부우연 입쌀밥에, 얼큰한 풋김치에, 구수한 된장씨개에, 짭짤함 자반
갈치 토박에, 골골한 새우젓에
 b. 충주댐이 완성된 뒤로 남시곶에, 등산객에, 온천객들이 몰려들어 북
 새를 이루는 것도 사실이다.

<2> ‘어느 부류에 속한 어릿 가운데’의 의미일 경우

조사 ‘에’가 ‘어떤 부류에 속한 어릿 가운데’라는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있다. (22a)의 ‘큰덕 머슴에’가 그것이다. 용례가 많지 않아서 일반화시키는 것에 조금 무리가 있으나,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22b), (22c)도 동일한 의미인 것으로 생각되므로 하나의 유형으로 제시하였다.

- (22) a. 큰덕 머슴에, 고행이 켜 낸다는, 이대똥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b. 백가 성 가진 사람에 장기 잘 두는 이가 있소. / 그게 누구란 말요, 한
많은 사람에 알 수 있소. (과학원 언어 문학 연구소(1960:160) 재인용)
 c. 키 큰 사람에 신경지 않은 사람이 없다. / 요즈음 사람에는 별 사람들
 이 다 있다. (이익섭·임홍빈(1983:152) 재인용)

3.2.3. 관용구적 쓰임

<1> 굳어진 결합

첫 번째 유형은 ‘대하다, 관하다, 따르다, 의하다, 비하다’가 몇몇 제한된 활용형으로만 쓰이면서 ‘에’ 논항을 취하는 경우이다. 과학원 언어 문학 연구소(1960)에서는 이를 문법화 과정에 있는 동사들이라고 하였다. 최근에는 어휘적 언어의 연장선상에 있는 문법적 언어로 정의되기도 한다.

- (23) a. 이 글은 화가 장욱진에 관한 기록이다.
 b. 김순박사에 따르면 김군도 ... 수술받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는 것.
 c. 난 친구들에 비해 비교적 일찍 결혼했다.
 d. 라디오·TV·신문·잡지는 모두 광고주인 스폰서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지 않은가.

본 연구에서 이용한 말뭉치에서는 ‘NP에 {관해서/관해/관하여/관한}, NP에 {대해서/대해/대하여/대한}, NP에 {따라서/따라/따르면/따른다면}, NP에 {비해서/비해/비하여/비하면/비한다면}, NP에 {의해서/의해/의하여/의하면}’ 등의 활용형이 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아래의 (24)에 나타난 형태들 또한 굳어진 결합의 유형에 포함시킬 수 있는 예들이다.

- (24) a. 유모차를 타고 엄마와 함께한 어린 아기로부터 유치원생, 초동학생, 중학생, 60대의 할머니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모두가 모여 만든 부대였다.
 b. ... 태조로부터 목종에 이르는 7대 실록을 완성하였다.
 c. 정병원, 김홍집에 이어 위재영이 등판했다.
 d. 박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 이씨에 앞서 증인 신문에 나선 ...
 e. 영준에는 온달에 얹힌 땅이름이 많고 애기가 많다.

(24a), (24b)는 동사 ‘이르다’가 ‘NP1(로)부터 NP2에 이르기까지’ ‘NP에 이르는’의 형태로 사용되어 일정한 범위를 한정하는 의미를 가진다. (24c)의 ‘정병원, 김홍집에 이어’는 순서상 어떤 것의 뒤에 잇따라 나타나는 의미이며, 주로 ‘NP에 {이어/이어서/이은}’의 형태로 사용된다. (24d)의 ‘이씨에 앞서’ 또한 순서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이씨보다 먼저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24e)의 ‘온달에 얹힌’은 ‘무엇인가가 복잡하게 뒤엉켜 있는’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무엇인가와 관련된’이라는 의미로서 이 경우에는 ‘NP에 얹힌’의 형태로만 나타난다.

◁2> 속담

속담 중 유정물명사구 뒤에서 ‘에’가 결합되어 나타나는 것으로는 ‘그 아비에 그 아들이다.’ 하나이며, 다른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

3.3. 선행요소로 ‘무정물명사구’만 나타나는 용법

아래의 (25)는 조사 ‘에’의 의미축성에 의해 선행요소로 무정물명사구만 나타나는 경우이다. 사전의 기술과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아래와 같이 몇 가지로 정리해 보았다.

- (25) a. 시간: 전 그날 새벽에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었어요.
 b. 원인: 하층 침실 사용자가 신경 거슬리는 파편 소리에 네 방을 두드렸다.
 c. 도구: 줄에 걸린 수건에 물기 닦고 부엌으로
 d. 상황: 눈발이 흩날리는 날씨에 ...
 e. 기준: 내가 보기에는 참 괜찮은 사람인데 ...
 f. 첨가: 흰 구두에 종질모를 썼고 회중시계를 몸에 걸고 있었다고 화가는 기억한다.
 g. 강조: ... 몸짓과 표정을 알맞게 지어 가며 연습에 연습을 거듭하였다.
 h. 단위: 기자는 일주일에 평균 10명 가량의 맥주를 마신다.
 i. 인용: 옛말에 호랑이한테 물려 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다.
 j. 어휘충위논항: ... 한 허름한 여권에 붙어 있는 선전판이 눈에 띄었지.

(25)의 ‘NP에’는 대부분 술어의 논항이 아닌 부가어이다. 즉, 술어의 의미구조를 완성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성분이 아니며, 직접적으로 술어와 관련을 맺지 않는다. 위의 용법에서는 의미 기능상 조사 ‘에’의 선행요소가 무정물명사구가 되지만, (25h)의 ‘단위’는 예외적으로 사람명사가 선행요소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빵을 하루에 두 개씩 주었다. / 빵을 한 사람에게 두 개씩 주었다.’가 그것이다. 3.1.1.에서 제시한 ‘NP

에게'와 'NP에'는 모두 술어의 필수적인 논항인 데 반해, 여기에서의 '하루에'와 '한 사람에게'는 부가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편 (25j)는 (25)의 다른 용법들과는 성격이 다르다. (25j)의 '눈에'는 어휘충위논항이다. 어휘충위논항이란 용언과 결합하여 하나의 술어처럼 행동하는 동사구를 이루는 논항을 말하며, 동사구 내부논항이라고 하기도 한다. 즉, 용언이 다른 어휘와 재구조화되어 하나의 어휘처럼 기능하는 복합 형태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것으로는 '눈에 띄다, 손에 넣다, 마음에 들다' 등이 있다.

4. 일본어 모어화자에 대한 조사 '에게·에'의 교수 방안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일본어 모어화자에게 한국어 조사 '에게'와 '에'를 가르칠 때 어떠한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 효과적인 제시 방법으로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몇 가지 방향성을 기술해 보기로 한다.

첫째, '에게'와 '에'는 '행위나 작용의 상대이자 도달점, 사물이나 속성의 소재지 혹은 소유자, 판단 행위의 기준 대상, 행위나 작용을 일으키는 작용자, 심리·지각 작용의 주체' 등 여러 가지 의미 기능을 공통적으로 가진다. 대부분의 교재에서는 '에게'와 '에'가 이러한 공통의 의미 기능을 가지고 있음이 아예 제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도달점이나 소재·소유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일본어에서도 비슷한 의미 기능이 있으므로 굳이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용법들 외에는 '에게'와 '에'의 선택에 유정성이 관여하지 않으므로 위의 공통적인 의미 기능을 분명히 제시하고 유정성은 이 용법들에만 한정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조사 '에게'와 '에'는 대부분 초급에서 한번 다루어진 후 학습항목에서 사라진다. 이에 '초급'이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아주 기초적인 설명에 그쳐 버리는 경우가 많다. 대학생들 대상으로 한 외국어 학습이라면 초급이라고 해도 모어 습득을 통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심층적이고 다양한 설명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3.1.2.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정성의 위계에서 낮은 위치에 있는 명사구인 경우에는 유정물임에도 불구하고 ‘에게’가 아닌 ‘에’가 결합되는 예들이 존재한다. 또한 유정물과 무정물의 어느 쪽으로도 분류가 어려운 경계적 명사구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대상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조사 선택에 중요한 변수가 된다. 사람이나 동물에는 ‘에게’가 사용되고 사물이나 장소에는 ‘에’가 사용된다는 기초적인 설명만으로는 학습자들에게 이 두 조사의 용법을 충분히 납득시킬 수 없다. 조사 ‘에게’와 ‘에’를 초급의 문법항목으로 한정지음으로써 보다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에게’와 ‘에’의 선택 문제를 너무 간략하게 설명해 버리고 마는 것이다. 같은 문법항목이라고 하여도 한번 제시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초급, 중급, 상급의 각 단계별로 학습자의 수준에 맞추어서 그에 맞는 설명과 연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3.2.와 같이 유정물명사구이건 무정물명사구이건 항상 조사 ‘에’가 결합하는 용법이 존재한다. ‘-에 대해서/대한, -에 관해서/관한’ 등의 관용적 표현은 일반적으로 중급 교재에서 다루어지며, 열거의 의미를 가지는 조사 ‘에’가 중급이나 상급 교재에서 간혹 언급되는 일이 있지만 기타의 다른 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교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 용법들은 유정성과 상관이 없다는 것을 반드시 명확하게 짚어줄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에 대해서/대한, -에 관해서/관한’과 같은 표현에 있어서도 유정물명사구이면 조사 ‘에게’를 붙인다고 오해할 수 있다. 실제로 학생들의 작문에서 그러한 예를 발견하여 고쳐준 경험도 있다.

넷째, 여러 교재들에서 조사 ‘에’와 ‘에게’는 일본어의 ‘に’격에 대응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に’로 번역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で’나 ‘にとって’, ‘(人)のところに’와 같은 다른 표현에 대응하는 것은 따로 분명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사전과 학습서에서의 기술을 참고하여 ‘에’와 ‘에게’가 ‘に’가 아닌 다른 표현으로 번역되는 것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① ‘で’에 대응하는 것

- 비용: 이 가방은 2천 엔에(2千円で) 샀다.
- 한정된 시간·기간: 열흘에(10日で) 끝냈다. / 오늘은 2시에(2時で) 학교가 끝난다.
- 연령: 그녀는 스물일곱 살에(27歳で) 결혼했다.

② ‘にとって’에 대응하는 것

소설을 읽는 독자들에게(読者にとって) 소설의 세계는 커다란 세계이다.

③ ‘(人)のところに’에 대응하는 것

나에게(僕のところ)에 있어요. / 선생님에게(先生のところ)에 가세요.

다섯째,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는 것이 요즘 들어 부쩍 신경이 쓰인다.’의 ‘친구들에게’는 ‘친구들에게서’로 대체할 수 있다. ‘듣다, 받다, 배우다, 빌리다, 얻다, 사다’ 등과 함께 나타나는 ‘에게’는 이와 같이 조사를 ‘에게서’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언급한 교재는 찾아볼 수 없었다. 대부분의 문법서와 교재에서는 조사 ‘에게’와 ‘에게서’를 각각 유정물명사구 뒤에서 ‘도달점’과 ‘출발점’을 표현하는 조사로 기술하고, ‘에게’는 ‘に’, ‘에게서’는 ‘から’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실제 만문치를 살펴보면 ‘에게’가 ‘출발점’의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형정(2012a)에서 살펴본 3,000여개의 ‘NP에게’ 용례 중 ‘NP에게’를 ‘NP에게서’로 대체할 수 있는 용례는 76개가 나왔다. ‘에게’와 ‘에게서’의 대립 체계가 흐트러지면서 ‘에게’가 ‘에게서’의 영역까지 점유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특히 구어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에게서’대신에 ‘에게’가 사용되므로 교재에서도 참고 항목 정도로 설명해 둘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국어사전편찬실(2009),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서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URL: <http://dic.daum.net/index.do?dic=kor>
- 과학원 언어 문학 연구소(1960), 『조선어문법1(어음론, 형태론)』, 평양: 미상(1961.3. 동경학우서방 번인. 1990.2. 서울 탑출판사 재영인)
- 국립국어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서울: 두산동아. URL: <http://stdweb2.korean.go.kr/main.jsp>
- 김형정(2009), 「간접적 객체로서의 ‘NP에게’」, 『한글』 285호 pp.97-130, 서울: 한글학회.
- 김형정(2010), 「선행명사구의 유정성과 조사 ‘에게/에’의 선택」, 『언어사실과 관점』 26집 pp.141-196, 서울: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 김형정(2012a), 「처격 조사의 결합관계를 통해서 본 한국어 유정성 연구」,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 김형정(2012b), 「작용자(Actor)로서의 ‘NP에게’와 ‘NP에’」, 『국어학』 제65집 pp.185-218, 서울: 국어학회.
-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편(1992), 『조선말대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편(1998), 『연세 한국어 사전』, 서울: 두산동아.
- 유현경(2007), 「‘에게’와 유정성」, 『형태론』 9권 2호 pp.257-275, 서울: 형태론학회.
- 이익섭·임홍빈(1983), 『국어문법론』, 서울: 학연사.
- コリア語教材研究会(2014), 『実用韓国語2改訂第2版』, 京都: 同志社大学生協書籍部.
- ハン・ナムス(韓 南洙)(1979) 「現代朝鮮語における格助詞-에게(-ege)について」 『言語の研究』 pp.547-596 言語学研究会 編 東京: むぎ書房.
- 菅野裕臣(著)浜之上幸・権容璟(改訂)(2007), 『朝鮮語の入門改訂版』, 東京: 白水社.
- 菅野裕臣・早川嘉春・志部昭平・浜田耕策・松原孝俊・野間秀樹・塩田今日子・伊藤英人(編)(1988;1991), 『コスモス朝和辞典(第2版)』, 東京: 白水社.
- 金京子・喜多恵美子(2013), 『改訂版 バランセ韓国語初級』, 東京: 朝日出版社.

- 金京子(2010),『バランセ韓国語中級』,東京:朝日出版社.
- 金亨貞(2014),「韓国語名詞句の有生性階層 - 助詞「에게(ege)」・「에(e)」との接続関係を中心に」,『GR—同志社大学グローバル地域文化学会紀要—』第3号 pp.31-70 同志社大学グローバル地域文化学会.
- 大阪外国語大学朝鮮語研究室(編)(1986),『朝鮮語大辞典』,東京:角川書店.
- 梅田博之(2006),『NHK新版 ハングル入門』,東京:日本放送出版協会.
- 李潤玉・酒匂康裕・須賀井義教・睦宗均・山田恭子(2012),『改訂版韓国語の世界へ入門編』,東京:朝日出版社.
- 李潤玉・酒匂康裕・須賀井義教・睦宗均・山田恭子(2013),『韓国語の世界へ初中級編』,東京:朝日出版社.
- 李姫子・李鍾濤(著)五十嵐孔一・中悠琳(訳)(2010),『韓国語文法語尾・助詞辞典』,東京:スリーエーネットワーク.
- 白峰子(著)大井秀明(訳)野間秀樹(監修)(2004),『韓国語文法辞典』,東京:三修社.
- 生越直樹(2002)「日本語の助詞「に」と朝鮮語の助詞「에게」をめくって」『日本語学と言語学』442-431頁 東京:明治書院
- 生越直樹・曹喜澈(2011),『ことばの架け橋 改訂版』,東京:白帝社.
- 小学館・韓国金星出版社(共編)(1993),『朝鮮語辞典』,東京:小学館.
- 天理大学朝鮮学科研究室(編)(1967;1980),『現代朝鮮語辞典改訂』,奈良:養徳社.
- 野間秀樹(2007),『新・至福の朝鮮語』,東京:朝日出版社.
- 奥田靖雄(1983),“に格の名詞と動詞とのくみあわせ”,『日本語文法・連語論(資料編)』言語学研究会 編, むぎ書房.
- 熊谷明泰(2015),『アリラン 改訂版』,東京:朝日出版社.『日韓対照言語学入門』(2005) 油谷幸利 東京:白帝社.
- 油谷幸利・コヨンジン(2014),『実用韓国語改訂版』,東京:白水社.
- 油谷幸利・金恩愛(2006),『間違いやすい韓国語表現100中級編』,東京:白帝社.
- 油谷幸利・金恩愛(2007),『間違いやすい韓国語表現100初級編』,東京:白帝社.
- 油谷幸利・門脇誠一・松尾勇・高島淑郎(共編)(2008),『小学館日韓辞典』,東京:小学館
- 韓国・国立国語院(著)梅田博之・李允希(監修)(2012),『標準韓国語文法辞典』,東京:アルク.

投稿截止日:2016年 9月15日

審査刊登日:2016年11月15日